

남자의 소변기가 작품이 된 사연

반드시 왼쪽 상단에서 로그인 후 작성하세요.



왼쪽의 작품은 마르셀 뒤샹이라는 사람이 상점에서 파는 남자 소변기에 <샘, Fountain>이라는 제목을 지어 작품으로 전시회에 출품해 많은 논란을 불러 일으켰지요.

이렇게 이미 만들어진 기성 물품에 제목과 의미를 부여하여 새로운 작품으로 탄생시키는 미술을 일컫는 말을 미술이라고 합니다.

빈칸을
채워보소



생활주변에서 이미 만들어진 제품 들 중에 '제목'을 붙여서 작품화 해 보고 싶은 작품이 있다면, 무엇이 있나요?
'제목'과 '물품'을 적어보세요.

